

## ■ 특특뉴스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이달 5,2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행에는 총 265개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4천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100억원 규모의 차환 자금을 공급받는다.

신보의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다. 대·중견기업은 회사채 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내부 평가등급 기준 K9(CPA 감사보고서 보유기업은 K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보는 올해 P-CBO 발행을 통해 총 5조1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달 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했다.

#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실감하고 있어요”

내달 1일부터 우유값 인상  
서울우유, 1ℓ 기준 5.4% ↑  
빵·유제품 등 도미노 우려

지난 26일 저녁, 광산구의 한 마트를 찾은 이 모씨(32)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 전 한참이나 망설였다. ‘무엇 하나 허투루 사면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우유를 담는 이 씨에게 내달 1일부터 우유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우유 가격까지 오른다니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우유가 오르면 빵,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격도 저절로 다 같이 오를 테니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간식 하나 사 먹는 것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최근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내달 1일부터 우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는 지난 23일 10월 1일부터 원유 1ℓ 기준으로 제품가격을 5.4%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 기준 2,500원 중반이었던 우유 가격은 2,700원대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원유가격 인상과 함께 그간 누적된 부자재 가격, 물류비용 및 고품질의 우유공급을 위한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압박이 커졌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 원유가격은 지난해 21원 인상돼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1년 유예됐다.

인상된 21원은 지난 8월부터 적용됐으며, 이에 우유업계는 8월부터 1ℓ당 중전 926원에서 2.3% 오른 ‘유대 조건표’에 따라 947원에 원유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원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유값은 인상하지 못하는 등 2개월 가량 약 수산업의 손실을 봤다.

우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인상해야 했으나 정부와 낙농가가 원유 가격 산정을 놓고 대립한 탓이다. 이와 더불어 정



지난 26일 저녁 광주 광산구의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지현 기자

부가 추석 물가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추석 전 우유 가격 인상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추석연휴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우유는 내달 1일부터 우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원유 가격 인상 이후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한 뒤 약 두 달만의 가격 인상이자,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상에 빵과 각종 과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등 유제품이 들 어간 다른 제품 또한 가격을 올리는 등 발상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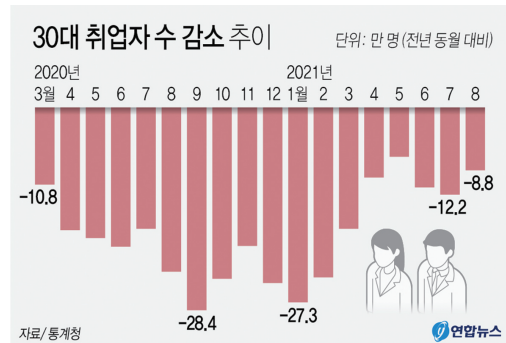
업계 1위 서울우유의 인상으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우유 가격 인상을 확장한 것은 아니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발상 물가는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소비가 많은 추석 명절과 국민지원금 지급·사용 시기가 겹치면서 소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지현 기자

## ■ 그래픽 경제



## 30대 취업자 18개월째 감소

지난달 30대 취업자가 18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같은 기간 30대 ‘취업률’ 인구는 18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대에서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선 사람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최근 통계청 8월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52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8,000명 감소했다.

이로써 30대 취업자는 지난 2020년 3월(-10만 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에는 15세부터 70세 이상에 이르는 전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었다.

## 공항공사, 가을맞이 여행상품 프로모션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테마여행 10선 항공 연계 상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우리나라 곳곳의 관광명소를 여행하도록 한 상품이다.

1박 2일 동안 김포-울산 노선을 이용하는 ‘불국사 야간투어’는 예불과 명상 등 사찰을 체험하고 야경이 인상적인 경주 안압지를 볼 수 있다. 김포-여수 노선은 이순신광장, 선

이시장 등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명소를 둘러보고 제철음식을 맛볼 수 있고 김포-광주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대표 민간 원림 담양 소쇄원을 여행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최대 30%, 숙박 20%, 체험은 10% 할인된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상품을 구매하는 선착순 10명을 대상으로 1+1 이벤트와 테마여행 10선 상품, 항공권을 각각 구매하고 인증한 고객에게 교통비의 30%를 페이백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 /오지현 기자

## 전남신보, 보증사업평가 ‘전국 1위’

### 코로나 선제 대응 등 호평 200억 이상 추가 공급 가능

전남신보보증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증사업평가는 연간 보증정책지원 효과를 측정해 신용보증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있는 정책보증이 지원되도록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16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남신보는 전남도와 원팀을 이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전용 심사서를 개발하고 신속대응 TF팀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 나주, 담양, 곡성 등에 원스톱 현장지원반을 운영, 피해복구 자금 신속 지원과 무등록 사업자를 지원한 점이 중재 지원에 대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 지난해에

는 재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3만 6,102개 업체, 9,355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전남신보는 이번 전국 1위 수상으로 은행 출연금 등 약 21억원을 확보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200억원 이상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신보 정양수 이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함께 원팀을 이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hotelthestar.com

##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 HOTEL THE STAR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